

# 광주 가계 빚 사상 최대

## 4월 주택대출 25개월째 증가해 9조 전남은 영농·가계 대출 등 늘어 12조

지난 4월 광주지역의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서민가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중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예금취급기관의 광주지역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1036억원 증가한 14조2614억원으로 기록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수치며,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 14억2099억원보다 515억원이 더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요인은 주택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가계대출 중 64.7%가 주택대출(9조2312억원)로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주택대출 잔액도 2010년 3월(3조6856

억) 이후 25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건립에 따라 화장·열주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대거 이동해 수급 불균형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도 지난 4월 가계 대출 잔액이 12조42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1.9% 증가했다. 주택대출 잔액도 5조46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5% 늘었다.

전남의 경우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이사철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주택대출이 늘어난데다 농사철을 맞아 기타대출 등이 소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월 예금취급기관의 전국 가계대

출 잔액은 639조5839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2월(639조6056억) 수준에 근접했다. 올 들어 1월에 636조2009억원으로 줄었다가 2월(637조2116억)에 다시 증가한 뒤 3월(637조1238억)에 줄었다가 4월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규모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도 전월보다 1조1000억원 늘어 4월 현재 잔액이 185조1190억원에 이른다. 주택대출이 전월보다 4000억원,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8000억원이 각각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잔액 규모를 끌어올렸다.

산업별로는 상호금융은 농사철 대출 수요로 증가폭이 2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됐고, 새마을금고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신차 및 우체국예금은 1000억원 감소에서 소폭 늘었고, 신탁은 1000억원으로 전달과 같았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 주식시장 투자심리 '한겨울'

## 코스닥 시가총액 100조선 무너져 99조

최근 들어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증시 거래대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유로존 이탈과 스페인으로의 백트러짐(예금 대량인출) 확산 우려에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진까지 겹쳐 최근 투자심리가 악화한 탓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작년 8월말 수준으로 급감했고 특히 거래대금은 당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지난 5월31일 현재 1061조원으로 작년 8월말의 1062조원과 비슷했다. 코스닥시장의 시총은 지난 5월31

일 현재 99조원으로 작년 8월31일의 102조원보다 3조원 가량 적었다. 코스닥 시총이 100조원을 밑돈 것은 작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9월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하지만, 거래대금 감소는 이보다 심각했다.

유가증권시장의 5월말일 거래대금은 4조6061억원으로 작년 8월말일의 6조201억원에 비해 25%(1조5040억) 가량 대폭 줄었다. 코스닥시장의 5월말일 거래대금도 1조5599억원으로 작년 8월말일 2조2651억원보다 31%(7052억) 이상 급감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1일 거래대금이 최소 6조5000억~7조원 이하로 국내증권사들이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거래대

금은 6조원대 초반으로까지 줄어 수익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증권사 매출에서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5~70%에 달해 거래대금 감소가 수익 악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거래대금 감소는 6월들어 더 심화하는 추세다.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은 지난 1일 3조5872억원, 4일 4조9414억원, 5일 3조5460억원 등으로 이달들어 일평균 거래량이 4조원 초반에 머물고 있다.

코스닥시장도 이달 들어 1일 1조4332억원, 4일 1조6021억원, 5일 1조5806억원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 4월까지만 해도 7조원대를 유지했지만 지난 5월 이후 5조~6조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여성류 매장에서 직원들이 올 여름 유행 아이템으로 떠오른 플라워 패턴 의류 활용법을 소개하고 있다.

# “스마트 상품 제조 국내기업 25%뿐” 자동차 활용도 1위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TV와 스크린 골프 등 IT(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상품을 만드는 기업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산업계의 IT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IT 융합을 통해 스마트 상품을 출시했거나 이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5.3%에 머물렀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 상품을 출시한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44.6%에 이르렀지만 중소기업은 16.8%밖에 되지 않았다. 자동차 관련 업종은 40.6%, 조선업종은 36.7%로 IT 융합의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반면 유통(16.0%), 기계(14.0%), 건설(3.0%) 업종은 낮았다. 기업들의 IT 신기술 활용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카드처럼 주파수를 통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RFID(무선인식) 기술을 업무에 활용중인 기업은 전체의 13.0%였고, 위성위치 추적시스템인 GPS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5.0%에 그쳤다.

'개인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이란 구름위에서 정보처리를 하게 한다'는 신기술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용비율은 19.7%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무허가 금융투자업체 82곳 적발

## 금감원 집중감시

금감감독원은 당국에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영업활동을 한 무허가 금융투자업체 82곳을 적발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82개 업체가

운데 63개 업체는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 중개업을 버젓이 했다. 19개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자문과 일일 업무를 해왔다.

적발된 업체들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코스피200지수 선물 등 투자를 위한 증거금(1천500만원 이상)을 남

입하고 이 계좌를 통해 자체 홈페이지 등 시스템(HTS)으로 투자자들의 신청을 받았다. 이를 통해 투자자 매매 주문을 실행시켜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러한 영업방식은 증거금 대여와 선물거래 중개가 결합한 형태로, 투자자는 1계약당 50만원의 증거금을 납입하고 선물거래를 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선물'이라는 문자를 이용해 인가받은 선물회사로 가장해 투자자를 끌어들이었다. /연합뉴스

# 광주은행, 함평 국군병원에 위문금

광주은행은 제57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참배의식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뜻을 기렸다.

이번 현충일 참배행사는 송기진 은행장을 비롯한 광주은행 임원 및 부서장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화 및 분향,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송기진 행장은 전날 오전 국군함평병원을 방문해 위문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임원 치료중인 국군장병을 위문했다.

광주은행은 매년 현충일을 앞두고



고 지역에 소재하는 국군병원을 방문해 위문금 전달과 함께 임직원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10억 초과 국외계좌 이달까지 신고해야

## 국세청, 과태료·누락 세금 추징...포상금제 시행

외국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지난 1년간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계좌 자산을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할 때 최대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국세청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나 내국법인으로 외국 금융기관에 예·적금계좌 등 은행 계좌와 예탁증서를 포함한 상장주식 등의 평가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 고 6일 밝혔다.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 기반 확대 및 과세형평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도입됐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숨겨서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10% 한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한도액이 작년 5%에서 두

배 늘었다. 작년에 신고했던 국외금융계좌 보유자도 신고 의무가 있다.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년간 누적돼 부과된다.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 내용은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기관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 관련자에 대한 정보이다.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 SR30

필드에서 비를 만나는 경우 **34%** 골프를 치다보면 손에 땀이 나는 경우 **98%**

## 땀이나지 않는 골프장갑 비올때 미끄러지지 않는 골프장갑

“이 2가지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SR30장갑 뿐입니다.”

**Sweat 땀 발생 ZERO**

10개의 매직홀과 120개의 미세홀이 손안의 온도조절을 해주어 30°C에서도 땀 발생을 억제합니다.

**Rain 우천시 미끄러짐 ZERO**

초미세극세사 0.402μm 단은 물기접촉시 3배의 마찰력으로 장갑 교체없이 18홀 라운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30°C 시원한 바람이 솔~솔~**

원심력 작용에 의한 매직 통풍홀의 찢김 방지 및 최고급 실리온 처리는 그림자를 더해 줍니다.

SR30골프/통풍형  
₩ 15,000/남

SR30골프/통풍형  
₩ 25,000/여

SR30골프/통풍형  
₩ 15,000/남

SR30골프/통풍형  
₩ 25,000/여

SR30트레킹/통풍형  
₩ 30,000/남

SR30트레킹/통풍형  
₩ 30,000/여

SR30은 골프, 트레킹, 스포츠레저용 장갑의 전문 브랜드입니다.

본사 홈페이지 방문구매 고객에게 최고급클토시증정 (06.01~06.05) [www.SR30.com](http://www.SR30.com)  
고객센터(본사) : 070-7767-5447 / 골프 및 스포츠용품 업체 입점 상담 / 판촉 및 단체주문 상담가능